

# 1999년 전자산업진흥회의 중점 사업

박재린(본회 상무이사)

## 1. 1999년 진흥회 사업의 의미

금년, 1999년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새로 열어가는 의미를 갖는 해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전자산업이 시작된지 꼭

우리 진흥회사업의 성격은 크게 보면 우리 전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작게 보면 우리 업계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으로 진흥회를 구심점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일들이다.

는 극심한 불황을 보이는데다 자금 및 신용의 경색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 유동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빅딜, M&A 그리고 분사와 퇴출이 유행어처럼 나돌았다.

## 1999년 전자산업진흥회의 중점 사업

40년이 되는 해로 우리 전자산업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각별한 뜻이 있는 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 당면한 불황으로부터 성장으로의 회복과 지난 전자산업을 되돌아 본 후 2000년대에 새로운 도약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두가지의 큰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전자산업의 국내외 여건은 이른바 IMF의 여파로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올해야말로 우리 전 전자산업인이 하나로 뭉쳐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불퇴전의 각오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년도 사업 추진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편달을 바라는 뜻에서 이번에 우리 진흥회의 중점사업을 이에 게재 하는 것이다.

## 2. 1998년 전자산업의 결산

작년 한해는 이른바 미증유의 IMF체제로 비단 우리 전자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사회 전체가 1년내내 불안과 고통으로 점철된 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비와 투자의 위축으로 경기

아직도 구조조정이 진행중이어서 서로간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한 갈등이 계속되어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래도 작년 연초부터 4월까지 『원화가 크게 절하되어 수출이 증가해 매출이 늘어났으나 그 후로는 수출마저 저조하고 수출단가의 하락과 금리폭등으로 채산성도 악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작년의 우리 전자산업은 성장성 측면에서 『달러』 기준으로 국내 생산 판매가 26.5%나 감퇴되었고 수출도 7.2%가 감소함으로써 생산이 15.2%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매출액 대 경상이익률도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98년의 상반기는 1.4%로 그 전년 상반기의 2.6%보다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전자산업과 국내 타산업을 상장기업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평균치로 볼 수 있는

업의 국내외 여건은 작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작년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반도체 DRAM 등의 가격하락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고 당초 침체를 우려했던 미국 경기도

나 아직 기업인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우리 전자산업은 이러한 국내외의 제반 경기여건과 그 동안 우리 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및 산업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반도체 DRAM, 휴대폰, LCD, PC 및

### 1999년 전자산업진흥회의 중점 사업

제조업의 매출증가율은 11.0%인데 비해 전자산업은 30.0%였으며 매출액 대 경상이익률도 제조업은 1.2% 적자인데 비해 전자산업은 0.2% 흑자로 나타나 그래도 전자산업이 타산업에 비해 다소 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자산업의 수출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작년의 우리 전자산업의 수출을 경쟁국들과 비교해보면 작년 9월까지 한국은 약 280억 불로 8.6%가 감소하였고 일본은 737억불로 11.4% 감소, 대만은 299억불로 5.2%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작년에 공통적으로 아세아, 러시아, 중남미 등의 외환시장이 불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3. 금년도 우리 전자산업의 국내외 여건

올해 들어와서도 우리 전자산

금리인하 등으로 성장세에 있으며 또 국내적으로 외환사정, 신용등급, 금리수준 등이 작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직도 구조조정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투자 및 소비의 위축도 여전하며 동남아, 러시아, 중남미 등의 외환불안도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완만하지만 원화가 절상세에 있고 엔화는 약세를 보여 이것이 수출증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나 우려된다.

OECD는 선진국들의 경제가 작년에 2.2% 성장에서 올해는 1.7%로 침체를 예측하고 있는 반면, 데이터퀘스트는 정보화사회의 확산 등으로 세계 전자시장은 작년의 2.2%보다 높은 6.9% 성장의 밝은 전망을 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점이 없지 않으며 국내 경제는 KIET 등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상반기에 경기저점을 통과하게 되고 하반기에는 회복세로 전환되어 연간 GNP는 0.3% 내지 2.2%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

HD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주도로 수출이 8.2%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전제품 및 범용 전자부품의 내수증가는 크게 기대할 수 없어 5% 내외의 비교적 낮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 4. 금년도 진흥회의 중점 사업

그러므로 우리 진흥회는 금년의 사업목표를 첫째, 불황으로부터 견실한 성장의 확보, 즉 수출 416억불로 8.2% 증가, 국내 생산판매 11조 2천억원으로 2.4%증가로 생산을 73조 5천억원의 5.4%의 성장을 달성할 것과, 둘째로는 2000년의 제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구조조도화 촉진 등으로 그 기반을 착실하게 쌓아 가는 것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본회는 첫째, 불황 극복을 위한 수출 진흥 및 내수 진작 둘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부품 등 자본재 및 고부가



가치 제품의 개발촉진 셋째,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과 업계 공동사업의 확대 넷째, 진흥 체제를 효율화를 시켜 최소의 여건으로 대회원 서비스를 극대화시켜 가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한다.

### (1) 불황극복을 위한 수출진흥 및 내수진작

현재 우리 전자산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시장이 작년에 이어 계속 불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무엇보다도 수출을 진흥하고 내수를 촉진시켜 나가는 일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50대 업체와 10대 수출 주종품

을 홍콩, 일본, 대만전과 연계하고 상호 유치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치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전시참가업체 및 바이어 유치를 대폭 확대해 나가며 중소기업 중심으로 작년부터 본격화한 COMDEX 등 해외 유명 전자전에 한국공동관을 작년의 3개 전자전에서 올해는 10개 전자전으로 늘려 나가고 전자상거래 시대에 부응하여 한국의 우수 전자부품 D/B를 크게 확충시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수출지원 체제를 구축, 그 성과를 제고시켜 나가고자 한다.

셋째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WTO 등 다자 및 쌍무 통상체널을 통해 한편으로는 ITA 품목 확대, 환경 등의 뉴라운드 추진 등으로 무역의 자유화를 요구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우

능성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안으로 모니터링제를 강화하고 밖으로는 현지 고문 변호사 등을 통해 최신의 통상정보를 신속히 수집, 대응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해 수출증대를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

넷째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특소세 추가인하 및 소비자 금융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계속지원, 발신자 전화번호표시 등 신규 통신 서비스의 도입과 공공부문의 정보화 투자 확대, 해외생산 후 역수입 제품의 관세 경감제 도입 등의 정책건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다섯째로는 금년 6월말에 수입선다변화제가 폐지됨에 따라 다른 정책 수단으로의 대체, 즉 유망·유치품목의 연구개발자금 지원확대, 수입제품의 A/S 및

## 1999년 전자산업진흥회의 중점사업

을 중심으로 매월 수출동향을 분석, 점검해 나가면서 수출 현장에서의 기업애로를 신속히 타개하고 수출에 영향이 큰 환율, 무역금융, 자본제 조달 등에 대한 동향을 분석, 수출증대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부장급으로 수출애로 타개반을 구성하고 업계 전문가로 수출촉진대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로는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로서 한국전자전의 전시 일정

리 제품 등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어 우리 업계로서는 진흥회를 중심으로 상호 공조체제를 확립,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국 유관기관과의 민간 협력 등 다각도로 우리의 실리를 위해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즉 대미 키폰 등에 대해서는 Sun Set Review제를 적극 활용하고, 대EU 자기 테이프 등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조사를 요구하며 새로 반덤핑 제소 가

형식검정 관리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수입동향 분석을 강화,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발생시는 관련업체와 함께 반덤핑 제소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2) 전자부품산업 진흥 및 고부가가치제품 개발 집중 지원

우리 전자산업이 2000년대에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원

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자부품산업을 진흥하고 자동화 제조장비의 개발, 채용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생산비용 구조에 맞는 고부가가치제품의 개발을 촉진

둘째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 제조장비의 개발, 채용을 촉진토록 관계기관과 협력, 개발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개발, 채용업체를 발굴해 포상하며 그 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

개선과 업계간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는 행정규제의 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사업으로 작년년부터 추진해 온 품질보증기간 단축,

### 1999년 전자산업진흥회의 중점사업

시켜 전자산업의 구조를 고도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미 우리 업계가 이러한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우리 진흥회도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 취약한 전자부품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전자부품산업 종합발전방안을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5월까지 수립,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부품업계 대표 중심으로 전자부품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용해 나가면서 정부에 대해 전자부품신뢰성 센터 설치, 기술인력 양성 확대 등의 정책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핵심부품 및 자동화 제조장비 개발, 성공사례 발표 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자구노력을 강화토록 촉구해 나가고자 한다.

물론 우리 진흥회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신개발부품 콘테스트의 행사도 대상을 대통령상으로 격상시켜 이를 확대 개최하며 국산화 대상부품 전시, 우수 개발부품 특별 전시, 셋트업계의 부품 구매계획 설명회 등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하고 국산 자동화 제조장비 구입에 대한 수요자금융지원 확대, 그리고 국산화가 안된 자동화 제조장비의 관세감면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로는 개발이 촉진되어야 할 고부가가치 제품 및 그 핵심부품을 조사, 제시하고 440억원의 개발자금을 연중 계속 지원하며 연구조합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계 공동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 이러한 품목의 발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디지털 TV 방송 일정의 준수와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구현, 전자서명 등 정보문화의 확산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 (3) 원기절감을 위한 규제완화 및 업계 공동사업 확대

우리 전자산업은 작년에 고금리와 단가하락 등으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어 올해는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수지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업의 원가절감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규제의 완화 및 제도

폐기물예치금제도 개선, 각종 검사제도의 완화 등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제도도입으로 업계 부담이 예상되는 PL법 사적복제보상금제 등의 도입을 최대한 저지 또는 연기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로는 우리 업계간 협력 및 공동사업을 통해 업계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폐전자제품의 회수처리 및 재자원화, 즉 리사이클링 센터의 공동 설치 운영사업을 작년에 완공해 운용 중인 중부권 센터 외에 영남권 센터와 호남권 센터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올해로 7년째 추진 중인 전자부품의 표준화, 공용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또 협의회, 분과위원회별로 원자재 공동 구입 등의 새로운 공동사업들을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

#### (4) 효율적인 진흥체제의 확립 및 회원서비스극대화

진흥회는 금년에 우리 업계의 여건이 작년에 못지않게 어렵다고 보고 진흥체제를 효율화시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진흥



활동은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업계에 대한 대화원 서비스를 극대화시켜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첫째는, 업계중심의 진흥체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품목별, 기능별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확대하고 그 운용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면서 사

은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 네번째로 전자산업에 대한 국내외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통계기법을 도입,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정보 분류체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자산업 종합 정보D/B의

이제 우리 전자산업은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 21세기의 고도 정보화사회를 맞아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통해 세계적인 선진 전자산업국으로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금년에 지난 40년의 전자산업을 되돌아 봄으로써 전자산업인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단결을 도모하며, 2000

## 1999년 전자산업진흥회의 중점사업

무국에 사업팀제 및 성과급제 등을 도입, 경영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

둘째는 업계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회원 유치 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국내외 전자전 등 자체 수익사업을 개발, 확대하며 전자산업 진흥 목적의 정부 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로는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PC통신 중심의 정보 서비스체제를 인터넷을 통한 정보서비스체제로 강화하고, 이미 구축해 운영중인 D/B의 정보를 보강하면서 또 새롭게 한국의 전자의료기기 D/B 등을 구축, 대외적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낮

내용을 최신 정보로 대체, 확대해 나감으로써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 (5) 『전자산업 40주년 및 전자전 30주년기념특별사업』

1999년은 우리나라에서 전자산업을 시작한지 꼭 40년째가 되는 뜻 깊은 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 총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성장 선도산업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제4위의 전자산업국으로 부상하였다.

년대의 재도약 의지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조출하지만 의미있는 전자산업 40주년 및 전자전 30주년 기념사업을 다음과 같이 특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 첫째, 한국전자산업 40년사 편찬
- 둘째, 전자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 셋째, 전자산업 40주년 및 전자전 30주년 기념 리셉션 개최
- 넷째, 전자부품산업발전방안 수립, 제시
- 다섯째, 전자산업 40주년 기념 노사화합 동반대회 개최

## '99년도 주요사업 추진일정

사 업 명	담당부서	월 별 추 진 일 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전자산업 40년사 편찬	진흥역												
1. 전자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2. 전자산업 40주년 기념리셉션 3. 전자산업 경기전망 4. 「한국의 전자산업」 발간 5. 경기여건변화 영향 조사 (환율변동 등) 6. 세계전자산업 동향 분석 7. 올해 전자산업대상 시상 8. 신기술, 신상품 개발동향 조사 D/B 9. 학계 및 연구소개발 기술조사 10. 사업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기획팀 " " " " " " " " " "						하반기			2000년			
1. 산업기술개발자금지원 2. 표준화 규격제정 (모니터용 코넥타 등 19개 과제) 3. 표준화 사업 성과분석 4. 가전제품의 부품 공용화 (청소기용 프러그 등 50개과제) 5. CRT 유리기술세미나 6. 전자부품 등록(CRT 등) 7. 전자부품 등록 설명회 8. 전자부품 등록, 홍보 9. 한일 전자부품 등록 교류회(일본) 10. 마그네트론 기술위원회 개최	개발표준팀 " " 생활전자과 개발표준팀 " " " " "		1차			2차			3차				
1. 품질보증제도 개선 2. 특소세 인하 건의 3. 폐기물예치금제 개선 4. 에너지표시효율등급제 대응 5. 소비자금융제 개선 6. PL법 도입 대응 7. 사적복제 보상금제 도입 대응 8. 재수입제품 관세 경감제 도입, 대응 9. 신규 환경정책도입 대응 10. D-TV 방송 추진 11. 디지털 제품 품목 분류	생활전자과 " " " " " " " " " "												

사 업 명	담당부서	월 별 추 진 일 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가전제품 수출동향 분석	생활전자과												
13. 리싸이클링센터 설치 추진 (영남권, 호남권)	"												
14. 폐 TV 회수 재자원화 방안 수립	"												
15. 가전제품재활용 사전 평가	"												
16. 오디오분과 운영	"												
17. 수입선다변화폐지, 대응	"												
1. 계측기 수출협력분과 구성, 운영	산업전자과												
2. 의료기기 해외전시회 참가	"												
3. 파나마 EDCF 사업지원	"												
4. 의료기기 수출분과 운영	"												
5. 의료기기 종합카다로그 제작	"												
6. 유명규격 획득 Work Shop	"												
7. 국산의료기기 D/B 구축	"												
8. 의료기기협의회 운영	"												
9. 의료기기 기술협력분과 운영	"												
10. 보안시스템 산업협의회 구성	"												
1. 우수전자부품 D/B 확충	부품산업과												
2. 신개발부품 특별전시회 개최	"												
3. 부품산업협의회 구성, 운영	"												
4. 부품산업발전방안 수립	"												
5. 자본재개발 성공사례 발표회	"												
6. 신개발 부품콘테스트 개최	"												
7. 전자부품구매계획 설명회	"												
8. 국산화대상 부품전시회 개최	"												
9. 품목별 분과위원회 운영 (LCD 등 5개 분과)	"												
10. 자기미디어협의회 운영	"												
1. 정보기기수출 지원 사업 (바이어 리스트)	정보산업과												
2. 정보기기 수출동향분석 및 정보제공	"												
3.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	"												
4. PC 부품 분과 운영 (공동 구매추진 등)	"												

사 업 명	담당부서	월 별 추 진 일 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5. 전자상거래 대응세미나 개최	정보산업과												
6.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 진흥	"												
7. 행망용 PC 조달 제도 개선	"												
8. 컴퓨터폐기물 예치금제 도입 대응	"				실태조사			대응책					
9. 컴퓨터 보급 실태조사	"												
10. 주요국의 컴퓨터산업 및 시장 조사	"												
11. 컴퓨터 특허 분과 운영	"												
12. 특허 Work Shop	"												
13. 특허 세미나 개최	"												
1. IMT-2000 대책	통신산업과					계획수립,	협의체 구성,	공동대응					
2. 통신기기용 부품 공동구매 추진	"					대상부품 선정,	공동구매추진						
3.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	"				런던								
4. 정보통신제도 개선	"				하노버								
5. 통신기기 신규수요창출 추진	"					과제조사		제도개선					
6. 통신서비스 사업과의 협력체제 구축	"												
7. EDCF 자금확대 추진	"												
8. 통신기기 전기안전 세미나 개최	"												
9. 통신기기 형식승인제도 개선 워크샵	"												
10. 품목별/기능별 분과 구성	"												
11. 산업동향조사 및 정보제공	"												
1. 수출동향조사 분석 ○ 50대 수출업체 대상(분기) ○ 주요 품목별 대상(월)	통상협력과												
2. 무역금융분과 운영(분기)	"												
3. 수출애로타개 대책반 운영	"												
4. FTA 설명회	"												
5. 수출거래 알선	"												
6. 중소기업 시설재 관세분납 대상확인	"												
7. 영문 홍보책자 발간 ○ 연차보고서 ○ 디렉토리 ○ 홍보지	"												
8. 수입규제대응 활동	"												
9. 수입동향 모니터링, 산업피해 구제 활동	"												



사 업 명	담당부서	월 별 추 진 일 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 세미나 개최 ○ 민관통상협력 포럼 ○ 미·EU 통상세미나 ○ 세계통상환경보고서	통상협력과					—	—						
11. 통상정보수집, 홍보 ○ 미·EU(고문변호사) ○ EU, 일본(주재원)	"	—											
12. 민간전자통상위원회 운영	"	—											
13. 한일 전자산업협의회 운영 ○ 1차(일본) ○ 2차(한국)	"												
14. 한·EECA 협력	"		임원		실무								
15. EIAJ 통상협력회의	"	—											
16. 한일 산업협력 ○ 대일 산업협력단 파견 ○ 한일 경제 교류회의 ○ 한일 산업기술교류단 파견 ○ 대일 투자 유치단 ○ 한일 투자촉진협의회	"	—									—	—	—
17. AEU 총회 및 기술세미나	"	—											
18. 세계전자포럼 참가	"								—				
1. '99 한국전자전 개최 ○ 계획 수립 ○ 안내서 발간, 홍보 ○ 참가신청 접수 ○ 참가업체 부스 배정 ○ 시설공사 ○ 디렉토리 및 데일리지 발간 ○ 개관식 ○ 전시회 ○ 결과보고 ○ 차기년도 계획 수립	전시과	—											
2. 아시아 전자전 주최자 회의 (대만)	"								—				
1. 전자산업 통계조사 (전산, 통계분석)	자료조사실												

사 업 명	담당부서	월 별 추 진 일 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2. 경쟁국 수출동향 조사 (일, 중, 대만 등)	자료조사실												
3. 전자산업 경기동향	"			—		—			—			—	
4. 전자산업 통계 연보 발간	"			—	—								
5. 통계정보 D/B 수록	"												
6. 월간「전자진흥」발간 보급	"												
7. 자료실 운영	"												
1. EIAK-INS 운영	전산정보실												—
2. 업무전산시스템 운영 지원	"												
3. 사무자동화시스템 운영	"												
4. 산업정보 D/B 운영 ○ 부품 ○ 계측기/의료기기	"												
5. 인터넷 환경기반구축 및 서비스	"												
6. Web Server 도입	"												
7. 전산실 운영	"												
1. 주요행사 ○ 정기총회 ○ 이사회 ○ 임원 간담회(2회) ○ 창립기념행사 ○ 노사화합 등반대회 ○ 임직원 체력단련 대회	총무과		—										
2. 회원총람 발간	"		—										
3. 신규회원 유치	"												
4. 불우이웃돕기 행사	"									—			—
5. 모범직원 추천포상	"												—
6. 임직원 건강진단	"												
7. 직원 자질력 향상 교육(2회)	"									—			
8. 기자간담회(3회)	"		—									—	
9. 시설물 보수	"												
10. 세무회계 처리	"												
11. 세무회계 교육 참가(2회)	"					—						—	